

한류와 한·중·일 전통문화 교류

김기상_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이사장

지 금 동남아를 비롯해 아시아권 전역에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거센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한류는 단순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시아 문화권의 역사적, 문화적 공동 토대와 통합,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가 어떠한지 이제 한류의 열풍이 동아시아의 더 넓은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공동체 기반 마련의 요구증대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를 형성한 공동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공동적인 문화적, 정신적 연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지역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들 수가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지리적 인접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일찍부터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왔다. 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일찍이 세계의 우수한 문명을 흡수해 왔고 중국의 화려했던 문명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방으로 흘러나갔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해상과 육로를 통해 중국의 직간접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유한 한민족의 문화를 꽃피워왔다.

일본은 백제와 가야의 문화를 해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그들 문화를 이루는 모체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교량적 국가로서 중국을 통해 유입되거나 우리 민족 내부에서 이 문화들과 교섭해 나가면서 고유하게 창출된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지



리적 인접성은 교류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형성된 권력을 팽창할 때면 지역 분쟁과 전쟁에 휘말리는 역경을 겪기도 했지만 이러한 투쟁과 갈등 속에서 고유한 각자의 문화들은 서로 노출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자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대한 공통의 문화적, 사회적 반목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긴장 관계에서도 문화는 서로의 영향을 주고 받기 마련이었다.

두 번째로 공동의 문화권을 들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으로서 정신적, 학문적, 문화적인 교류가 지식인 계층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지식인 계층에 의해 받아들여진 문화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예술, 정치, 학문적 행위들을 통해 하부계층에까지 흘러들어갔고, 한국, 일본, 중국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는 불교, 유교, 도교 등과 같은 공동의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은 건축, 미술, 음악, 공예, 도예, 의복 등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규모와 형식에서 각자 고유하게 발전시킨 면들을 제외한다면, 상호 일치하는 공통적인 형식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중국·한국을 잇는 문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근거는 충분하다.

각 나라들이 자국의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이야기할 때면 이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한 민족의 독특한 문화는 자신의 독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인접한 문화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교류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특히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칭할 지라도 문화란 자국의 고유성을 상징할 수 없고 주변 문화와의 끊임없는 교류의 산물이므로 상호 문화의 이해와 비교를 통해 자국 문화의 독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음'과 '다름'이 동시에 경험됨으로써 문화경험이 더욱 깊이 체감될 수 있다. 특히 서구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모순들을 동양의 정신문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교류, 특히 전통문화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교류와 교류된 동일한 문화적 연대감은 동양을 배우고자 하는 서구 사회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며, 특히 당사자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한류의 열풍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뿌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는 추상적으로 학술적 틀에 의해 파악될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와 타 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 교류는 인접한 문화연대자들을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증거 틀을 제공할 수 있다. ◆